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17】

2012. 6. 28.

UAE, 오만의 태양에너지 개발 현황과 외국인투자환경

목 차

I. 태양에너지 개발현황	1
II. 외국인투자환경의 주요 내용	5
III. 시사점	12



- 최근 중동 산유국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UAE의 두바이와 오만은 높은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각국 태양에너지 개발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외국인투자환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I. 태양에너지 개발현황

1. 두바이(UAE)

□ 두바이, 태양에너지 활용비율 확대 계획

- 두바이 정부는 '2030년 종합에너지전략(Dubai Integrated Energy Strategy 2030)'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화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등 다양한 공급원을 활용할 계획임.
 - 자원별 발전비율은 현재 천연가스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천연가스 71%, 청정화석연료 12%, 원자력발전 12%, 태양에너지 5%로 재편할 예정임.
- 2008~09년 실시된 사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를 우선적 개발대상으로 선택하였음. 풍력 발전도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기술수준과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한 가시적 현실적 면을 고려하여 개발 잠재력이 보다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태양에너지 발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두바이는 많은 일조량, 긴 일광시간, 적은 강수량, 넓은 사막 등 태양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두바이, 대규모 태양광 단지(Solar park) 설립 추진

- 두바이 남동쪽 세이알다할(Seih al-Dahal) 지역에 48km² 규모의 태양광단지(Mohammed bin Rashid al-Maktom solar park)가 건설될 예정임.



- 이는 발전소는 물론 R&D 센터, 교육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로 설립될 예정으로, 완공될 시 GCC 국가에서 최대 규모의 Solar park가 될 것이며 Green Economy 달성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는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10MW 규모의 태양에너지발전소 설립을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1,000MW 규모의 발전소를 설립하는 마스터플랜이 실시될 예정임.
 - 시범사업은 두바이 수·전력청(DEWA)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마스터플랜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민자발전방식(Independent Power Plant: IPP)으로 전환될 예정임. 마스터플랜 진행을 위한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입찰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임.
 - 시범사업은 기술면에서 초기에는 태양광(Solar Photovoltaic: PV)¹⁾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태양열(Concentrated Solar Power: CSP)²⁾도 활용할 계획임.
- 정부는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발전업체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³⁾ 도입 및 보상금 지급을 검토 중임.

2. 오만

□ 전력수요 증대로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약 2%에 달하는 인구증가율, 최근 연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청년층의 도시이주 급증, 정부의 강력한 산업다변화 추진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량은 2015년까지 연 7~10% 늘어나 추가소요전력이 2,000MW에 달할 전망이다.⁴⁾ 이에 정부는 발전용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1) 태양광발전 방식은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해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장점이 있음.

2) 태양열발전 방식은 거울, 렌즈를 이용하여 태양열을 모아 고온의 공기,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용 터빈을 작동시키는 발전 방식임. 이후의 발전과정은 중래의 화력발전 방식과 동일함.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4) 수전력구매공사(OPWP)는 전력수요량이 2010년 3,424MW에서 2016년 6,043MW로 무려 7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오만은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잠재력을 연구하여 풍력 및 태양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태양에너지 개발은 개발·실행 가능성을 진단하는 초기 단계로서 발전소 설립 후보지 선정, 기술 연구 등을 마친 상태임.
- 주요 이슈는 정책 투명성과 개발타당성(장소, 비용, 효과 등)임. 오만 수·전력청 (Public Authority for Electricity and Water: PAEW)이 외국인 투자유치 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관련 정책을 수립을 담당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가스 등 다른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IPP로 진행될 것이며, 경쟁입찰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이 마련된 후에 입찰을 시작할 것임.
- 정부는 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정책(세액 공제, 발전차액 지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사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태양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 2012년 3월에 수전력구매공사(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OPWP)는 태양광 발전소(100~200MW 규모) 건설 후보지역에 대한 입지여건을 조사한 결과, 후보 지역을 Adam, Manah, Ibri, Al Khabourah⁵⁾ 등 총 7개로 압축하였음.⁶⁾

<표1> 오만의 태양열 발전소 후보지 일사량 측정결과

단위: kWh/m²

지역명	일사량
Manah 1번 구역	6.45~6.85
Adam 2번 구역	6.61
Ibri 1번 구역	6.26
Al Khabourah 1번 구역	6.18

- 일사량이 6.47~6.85kWh/m²로 가장 높은 Manah 지역이 최고의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음.

5) 이 지역은 복합가스터빈방식(Combined Cycle Gas Turbine Plant)을 적용할 경우에만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6) 일사량(Insolation), 먼지 모니터링(dust monitoring)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인 'Solar Energy Data Collection'을 발표하였음.



II. 외국인투자환경의 주요 내용

1. 두바이(UAE)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개방적인 투자정책

- UAE는 금융업 및 원유·가스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문호를 개방하였고,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통제, 국내 판매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없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허용함.
- 외국인 지분소유가 49%까지만 허용(단,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까지 허용)되며, 외국인투자자는 지분참여만 가능할 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010년 말 두바이 경제위기로 외국기업 유치가 절실해지자 정부는 외국인소유 지분을 상향조정을 검토한 바 있음.

□ 주로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법인 설립

- UAE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4가지(Joint Venture, Public Joint Stock Company, Private Joint 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임.
- 이 중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설립요건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의 설립형태로 주주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됨.
- 회사 설립 이전에 해당 토후국(emirate)의 정부, 경제개발부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이름·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 정관은 각 토후국 요구에 맞게 공증을 받아야 함.
- 설립 허가를 받은 회사는 해당 정부 및 상공회의소에 등록되며 회사 정관은 UAE 경제부 공보에 공개됨.



UAE의 스폰서 및 에이전트 제도

□ 스폰서

- 자유무역 지대 이외에 법인, 지사 등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기업은 UAE 국민 혹은 UAE 기업을 반드시 스폰서로 지정해야 함.
- 스폰서의 역할은 고용인의 비자 발급, 사업자 등록증 발급절차 진행 등 행정업무 대행에서 영업활동 참여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보수에도 차이가 있음.

□ 에이전트

- 법인, 지사 등을 설립하지 않고 UAE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UAE 국민 혹은 UAE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야 함.
- 에이전트와 계약한 회사는 현지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생긴 이익의 일정 부분(통상 1~5%)을 에이전트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1~3년임.

2) 외국인투자 여건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여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UAE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전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기계류 등 수입 시 관세 면제, 외환통제 전무, 일부 품목(마약, 주류,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규제 전무, 도로·항만 등 인프라 양호, 중동·아프리카·서남아·CIS 지역에 대한 재수출시장으로서의 유리한 입지

□ 자유무역지대(Free Zone: FZ) 운영

- 7개의 토후국 중 두바이에는 25개 FZ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은 약 6,400개에 달함. FZ는 업종, 취급 상품별로 특화되어 있는데, 1980년에 설립된 제벨 알리 무역지대(Jebel Ali Free Zone)가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함.



-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토후국의 자유지역 관할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함. 해당 지역 관할청은 4개 라이선스(Trade License, Service License, Manufacturing License, National Industrial License)를 발급함.

자유무역지대 내 회사설립 절차

① 등록 신청

- 회사를 설립하려는 지역의 해당 자유지역청에 등록을 신청함.
- 공증 대상문서는 기업 구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력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업 수용여부 검토과정은 2주~2개월 정도 소요되며, 동 청의 판단 하에 FZ의 특성 및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라이선스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② 라이선스 신청

- 두바이 FZ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사무용 부지를 임대, 매입하여 각 자유지역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음.
- 두바이 FZ는 영역 밖의 사무실이나 물류 창고 등을 허용하지 않으나, 등록 시기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외부 장소 임대가 가능함.
- 대부분의 FZ는 라이선스 발급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며 모든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기일 전에 갱신해야 함.

③ 은행구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임대계약서 제출

④ 수수료 납부 및 라이선스 수령

- 두바이 자유무역지대별 공통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소득세 비과세, 법인 설립 시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100% 인정, 법인 및 지사, 사무소 설립 시 UAE 자국민 스폰서 지정 의무 면제임.
- 두바이 내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 중의 하나인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100% 외국인 투자 가능, 외국인 근로자 자유 채용, 과실 송금에 대한 규제 및 외환 통제 전무, 법인소득세 15년 간 면제(추가 15년 간 면제 가능), 개인소득세 면제, 수입·수출세 전무, 외환거래 자유



□ 소득세 및 법인세 전무, 외환규제 없어

- 일반 개인,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으나, 석유회사, 은행, 상업용 건물(연간 임대료의 10%)의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외환거래를 통제하지 않고 있어 외환의 무제한 반출입이 가능하며, 환전은 환전소와 은행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짐.
- 일반 은행에서도 구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बैं킹이나 자금이체 신청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음. 단,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

□ 노동제도

- 내국인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근로자 이름, 연령, 채용일, 급여, 근로내용 및 등록카드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함.
- 근로자들은 근로카드(labor card)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카드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3년) 경과 후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음.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합의하면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후에 갱신하려면 고용주가 노동부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전에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근로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라마단 기간 중에는 근무시간이 2시간 단축됨.
- 해고 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고용주는 늦어도 30일 전에 피고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시에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2. 오만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노력

- 정부는 석유부문의 경제의존도 완화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제조업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투자 신청 및 승인,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투자전담기관인 OCIPED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음.
- 2002년부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가 종전 49%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음.

□ 정부발주사업 수행 시에는 지사(Foreign Branch) 설립 선호

-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들은 EPC 수행을 위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함에 있어, 현지법인에 비해 운영하기 쉽고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는 Foreign Branch 형태를 선호함.
 - Foreign Branch는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오만 각료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음.
- Foreign branch 설립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주로 현지 기업과 합작하는 현지법인(주로 LLC 형태)을 설립함.
 - 유한회사(LLC)는 2~40명의 투자자로 구성되고 최소 자본금은 약 39만 달러이며, 외국인의 경우 7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 대기업을 수주한 정부 프로젝트의 재도급을 받은 경우도 민간계약에 해당되므로 Foreign branch가 아닌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함.



2) 외국인투자 여건

□ 안정적인 투자환경

- 카부스(Qabus) 국왕의 영도 하에 매우 안정적인 국내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풍부한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여 공공요금이 저렴하며, 제조업 부문 투자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해 주고 있음.
- 아라비아 만의 관문으로 아프리카, 인도, 유럽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지에 위치해 있어 GCC, 이란, 예멘, 인도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로 적합함.

□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여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오만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제조업, 광업, 국내생산 또는 가공제품 수출, 관광, 어업 및 수산가공, 농업 및 농산물 가공, 공공설비 부문 투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5년 추가 연장 가능),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계, 설비, 부품,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시 5년간 관세 면제
 - 정부의 외국인 투자지분 49% 이하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제공, 오만 개발은행의 중 장기 융자, 지급보증, 수출금융 제공

□ 자유무역지대(Free Zone: FZ) 운영

- 오만 내 자유무역지대는 총 4개(Sohar, Salalah, Al Mazunah, KOM)임.
- Sohar 경제특구는 법인세 면제(최대 25년), 관세·개인소득세 전무, 외국인의 지분 100% 소유 가능, 최소자본금 제한 전무 등 혜택을 제공함.
- Salalah 경제특구는 장기간 임대 가능, 모든 세금 면제, 수입규제 전무, 외국인의 지분 100% 소유 가능, 최소자본금 제한 전무 등 혜택이 있으나, 전체 직원 중 10%를 오만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음.
- Al Mazunah와 KOM(Knowledge Oasis Muscat)는 각각 자동차와 IT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4월부터 오만 정부와 한국의 대우가 Duqm 특별경제지구를 건설하고 있음. 총면적은 1,620km²로 중동의 FZ 중 최대 규모로 10만 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연 50만 명의 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설립할 예정임.

□ 법인소득세 12%, 개인소득세 전무

- 100% 오만인 소유회사, 70% 이상 외국인 소유회사 등에 대해서는 79,500만 달러를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12% 법인소득세를 부과함.
- 원천세는 오만 내 회사로부터 로열티, 임대료, 경영수수료, 전문 기술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수를 창출하는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총 수령액의 10%를 징수함.
- 지방정부세는 호텔, 부동산 임대료, 레저 시설 및 극장, 전기료 등에 대해 무스카트, 살랄라 등 일부 지역에서 부과하고 있음.

□ 외환통제 전무

- 과실송금, 자금차입, 재투자 등의 자본 유출입이나 태환, 외환거래 등에 통제가 전혀 없음. 여행객들도 입국 시 보유외환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환전 가능함.

□ 노동제도

-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노동허가(labour clearance), 취업비자(employment visa), 의료검진, 노동카드(labour card), 거주허가(resident permit) 등을 취득해야 함.
 -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⁷⁾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시 노동 허가나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많음.
 - * 오만인을 채용하면 기본급의 19%(고용주 9%, 오만인 5%, 오만 정부 5% 부담)를 사회보장세로 지급해야 함.
-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해 최저임금을 기존 150리얄(약 390달러)에서 200리얄(약 520달러)로 대폭 인상하였음.

7) 정부가 외국인 노동인력을 점진적으로 자국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산업부분별로 오만인 채용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택시 기사, 전화 교환원, 비서, 회계사 등 일부 직종은 외국인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



- 동 최저임금은 자국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제3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주간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에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함.

Ⅲ. 시사점

□ 인지도가 높고 시공능력을 인정받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증대

- 두바이 수·전력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각국 해당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면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음.
- 현재 한국전력(KEPCO)과 MOU 체결을 최종 조율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기술면에서 선진화된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앞선 한국이 태양에너지 복합단지의 R&D 부문에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오만은 국내자본 및 기술 축적이 부족하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기술 습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가스 부문의 지속적 협력을 기대하며, 정부가 수출지향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공업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 특히 현재 컨테이너선, 대형 유조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신항구가 건설되고 있는 두쿰 경제특구(Duqm Special Free Zone)에 많은 한국 기업이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중공업회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6월 중에 주한국 오만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자국 관련기관과의 면담을 주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선진국과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선호도가 높은 편임.



□ 차별화된 진출전략 필요

- 한국 기업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태양광 모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래, 먼지를 극복할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또한 오만 정부가 기발주된 프로젝트에 단순히 참가하기보다는 프로젝트 내용을 보완하고 신규 유망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므로 사업제안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함.
-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진출 기업과 기자재 공급업체는 주요 발주처, EPC 업체 및 에이전트, 현지 태양광 관련 업체 등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중동 지역의 시공 경험이 부족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우므로 초기에는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작성 : 국별조사실
조사역 박유정 (3779-5727)
yjpark@koreaexim.go.kr